

내년도 기능인력 수요, 0.8% 늘어난 130.7만명 전망

- 숙련 인력의 임금은 공급 감소로 올해보다 4.4% 오를 듯 -

심규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gbshim@cerik.re.kr

20 15년 상반기의 건설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94,36조원(2010년 연쇄가격 기준)이고, 하반기에는 6.3% 증가한 111.7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 취업자 수 역시 올해 들어 2014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산업의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2월 6.9%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미미한 회복세를 보여

7%대를 겨우 넘어선 모습이다.

올해의 전년 동기 대비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율은 건설투자 증가율을 웃도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양자의 연관성은 많이 약화되어 있다. 건설 현장에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 또는 불법 취업자가 많고(2015년에 총 29만명 중 합법은 5만명으로 추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들이 통계

건설업 취업자 수 및 건설투자 추이

(단위 : 천명, %, 조원)

구분	2013	2014	2015									
			1	2	3	4	5	6	7	8	9	
전(全) 산업	25,066	25,599	25,106	25,195	25,501	25,900	26,189	26,205	26,305	26,141	26,264	
건설업	1,754	1,796	1,758	1,732	1,777	1,838	1,862	1,870	1,874	1,820	1,838	
건설업 비중	7.0	7.0	7.0	6.9	7.0	7.1	7.1	7.1	7.1	7.0	7.0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1	2.4	4.1	4.1	4.6	3.5	2.3	1.5	1.4	0.6	-0.1	
건설 투자 (2010년 연쇄가격)	196.33	198.39	94.36(상반기 전망치)							111.74(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5.5	1.0	1.2							6.3(하반기)		

주 : 2015년 건설 투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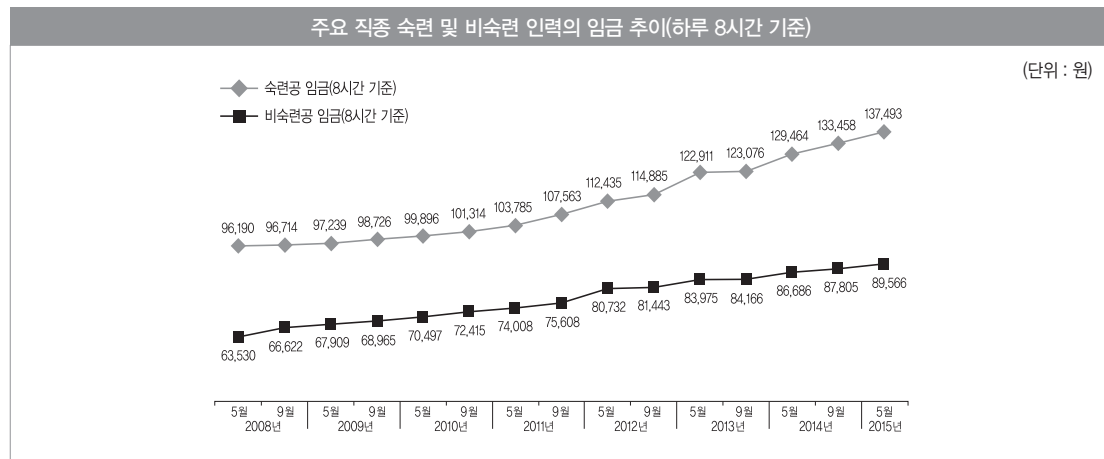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각 연도 각 월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일부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건설 투자와 건설업 취업자 수의 추이가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주요 직종별 임금 동향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하루 8시간 환산 임금)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건설 근

로자의 주요 직종별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것은 상반기의 건설투자 증가에도 일부 원인이 있지만, 보다 큰 원인은 건설 기능인력의 고령화로 표출되는 인력 풀의 약화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 임금 조사는 주로 한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력 풀이 약화되면서 내국인 숙련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호소의 목소리



자료 : 대한건설협회, 각 연도(조사 시점 기준).

건설 기능인력의 주요 직종별 임금 동향(하루 8시간 기준)

(단위 : 원)

직종명	직종별 8시간 기준 임금 추이(조사 시점 기준)								증감 (2015.5/2014.5)	
	2011.9	2012.5	2012.9	2013.5	2013.9	2014.5	2014.9	2015.5	증감액	증감률
보통 인부	75,608	80,732	81,443	83,975	84,166	86,686	87,805	89,566	2,880	3.3
숙련공 평균	107,563	112,435	114,885	122,911	123,076	129,464	133,458	137,493	8,030	6.2
형틀목공	114,466	107,506	115,082	132,235	132,373	143,562	151,091	152,831	9,269	6.5
건축목공	104,682	113,281	113,962	123,200	123,567	133,609	139,327	142,205	8,596	6.4
비계공	126,924	136,740	141,535	150,673	149,852	153,958	158,014	161,990	8,032	5.2
조적공	109,297	117,597	116,217	120,532	122,344	119,163	125,105	126,631	7,468	6.3
미장공	107,403	112,225	115,095	123,123	129,924	135,353	140,811	141,989	6,636	4.9
방수공	81,612	88,799	87,417	92,902	91,971	98,523	101,093	105,008	6,485	6.6
타일공	115,534	120,603	123,611	130,375	126,339	132,287	133,837	141,147	8,860	6.7
콘크리트공	107,477	111,559	117,989	123,616	125,217	131,474	139,853	142,556	11,082	8.4
배관공	95,187	103,242	104,844	112,679	108,729	117,068	116,622	122,333	5,265	4.5
도장공	105,730	106,840	109,720	114,929	115,265	121,900	122,128	127,681	5,781	4.7
철근공	114,884	118,389	118,264	127,758	128,252	137,204	140,157	148,057	10,853	7.9

자료 : 대한건설협회, 각 연도(조사 시점 기준).

2016년 건설 기능인력 수요·공급 및 임금(8시간 기준) 전망

(단위 : 조원, 천명, 원)

구분	2014년			2015년(e)			2016년(e)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건설 투자	93.28	105.11	198.39	94.36	111.74	206.10	213.32
건설 기능인력 (내국인)	수요	1,248	1,316	1,282	1,290	1,320	1,305
	공급	1,102	1,113	1,108	1,100	1,109	1,105
일일 임금 (8시간 기준)	숙련 인력	129,464	133,458	131,461	137,493	139,254	138,374
	비숙련 인력	86,686	87,805	87,246	89,566	92,688	91,127
증감률(% , 전년 동기 대비)							
건설투자	1.8	0.4	1.0	1.2	6.3	3.9	3.5
건설 기능인력 (내국인)	수요	1.2	3.8	2.5	3.5	1.1	2.3
	공급	-1.7	-1.4	-1.6	-0.2	-0.4	-0.3
일일 임금 (8시간 기준)	숙련 인력	5.3	8.4	6.9	6.2	6.9	6.6
	비숙련 인력	3.2	4.3	3.8	3.3	5.8	4.6

주 : 1) 건설 투자는 2010년 불변가격 기준임.

2) 건설 기능인력 수급을 내국인으로 국한한 이유는 외국인의 경우 도입 규모 및 단속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책적 변수이기 때문임.

3) 일일 임금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숙련인력 임금은 11개 주요 직종(형틀목공·건축목공·비계공·조적공·미장공·방수공·타일공·콘크리트공·배관공·도장공·철근공)의 평균 임금이며, 비숙련 인력 임금은 보통 인부의 임금을 의미함.

4)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수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5월 시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비숙련 인력인 보통 인부의 임금은 8만 9,56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했고, 11개 주요 직종이 포함된 숙련 인력의 평균 임금은 13만 7,493원으로 6.2% 상승했다.

주요 직종별로 살펴보면 2015년 5월 현재 일일 임금이 가장 높은 직종은 비계공(161,990원)이고, 그 뒤를 형틀목공(152,831원), 철근공(148,057원), 콘크리트공(142,556원), 건축목공(142,205원), 미장공(141,989원), 타일공(141,147원) 등이 따르고 있다. 1년 간의 직종별 일일 임금 증감을 살펴보면 콘크리트공의 경우 8.4%가 올라 1만 1,082원이 상승했고, 철근공의 경우 1만 853원(7.9%)이 상승했으며, 타일공은 8,860원(6.7%)이 올랐다. 주요 직종 중 전년

동기 대비 임금이 하락한 직종은 없다.

기능인력 수요 증가, 공급은 감소할 듯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6년 국내 건설투자가 2015년보다 3.5% 증가한 213.32조원(2010년 불변 가격)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건설 생산에 신소재 도입 또는 공법 개발 등으로 건설 기능인력의 수요는 2015년에 비해 약 0.8% 증가한 130만 7,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속되는 고령화 추세와 젊은 층의 진입 기피의 심화, 외국 인력에 의한 내국 인력 대체로 공급은 제자리에 머물며 109만 5,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 인력의 공급은 정부의 외국 인력 정책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의 과도한 내국인 일자리 대체를 예방하고자 방문취업 동

포(H-2)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취업등록제'와 제3 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건설업종 차원의 허용 인원을 규제하고 있다. 2015년에는 건설업취업등록제 도입 규모를 5만 5,000명, 그리고 고용허가제(E-9)는 2,350명으로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불법 취업자가 존재해 건설 기능인력 수급과 임금의 변화에 영향을 줄 실질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임금 상승세 지속 예상

2016년에 기능인력 수요는 약 2,000명 증가하나 국내 기능인력 공급은 약 1만명 감소해 임금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내국 인력에 국한된 2016년 부족 규모는 약 21만명이나 외국 인력 29만명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약 8만 명의 공급이 과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국인의 고령화로 숙련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종, 예컨대 벽체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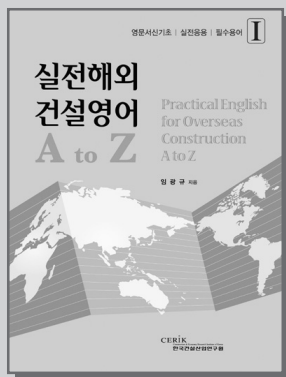
천장 타일, 계단참 형틀 등을 중심으로 임금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2016년 숙련 인력의 평균 일일 임금은 전년 대비 4.4% 증가해 14만 1,369원이 되고, 비숙련 인력의 경우 전년 대비 3.7% 증가해 9만 2,854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외국 인력의 공급이 정부의 의도대로 통제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미 우리 건설 노동시장은 합법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와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 정도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정도로 취약해진 상태다. 또한 기능도는 내국인의 60% 내지 70% 정도인데 임금 수준은 80% 내지 90% 수준에 육박해 채산성이 많이 악화되고 품질도 크게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 노동시장의 건전성과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내국인 청년층의 진입 촉진과 숙련 인력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CERIK

도 · 서 · 안 · 내

실전해외건설영어 I | 임광규 지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건설기업의 글로벌 건설 인력 양성을 통한 국제 건설시장 진출과 프로젝트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총 5권의 「실전해외건설영어」 출간을 기획하고 이 중 제1권을 발간하였다.

「실전해외건설영어 I」은 영문 서신 작성의 기초부터 해외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던 400여 건의 영문 서신 사례를 편집, 주석을 달았다.